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그린수송시스템 현황 - 지능형 철도 시스템 (요약)

경제 이슈: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퇴직연금

이슈: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세심록

잘 살아 보자

Book Review

자원, 식량, 에너지가 바꾸는 세상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

-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3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국내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5%, 전기대비로는 0.9% 성장하였음
 - 소비·투자: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6%, 건설투자도 0.7%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11.5% 감소함
 - 수출입: 수출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했고, 수입도 전기기계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나 1.8% 증가함
-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지난해 1분기 2.8%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경기 개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국내 금융시장은 보합

- 유럽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북한 리스크 감소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장은 투자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보합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월 26일 2.52%에서 5월 10일 현재 2.55%로 0.03%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의 약세가 심화되면서 4월 26일 1,110.5원에서 5월 10일 현재 1,108.0원으로 2.5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주요 선진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4월 26일 1,944.6에서 5월 10일 1,944.8로 강보합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4/26	5/10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7	-3.0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3	1.2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5	-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49.8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52	2.55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10.5	1,108.0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944.6	1,944.8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4월 26일은 3월, 5월 10일은 4월 수치임.

□ 산업 이슈: 그린수송시스템 현황 - 지능형 철도 시스템 (요약)

○ 100년만의 철도 르네상스

-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SOC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저탄소 교통체계)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작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대표적 그린수송시스템
 - (친환경 SOC 투자) 세계 주요국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과거 선진국에 한정되었던 친환경·고속·대용량 수송수단에 대한 수요가 개도국으로 확대되면서 고속철도 관련 수출가능성 증가
- 특히 '첨단 고속철도'와 '지능형 철도시스템'에 대한 기술경쟁이 치열
 - (첨단 고속철도) 주로 유럽과 일본에서 운행되던 고속철도가 한국과 중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지능형 철도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고장 점검, 원격제어 등을 통한 철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추구
- 본고에서는 지능형 철도시스템을 중심으로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

○ 철도 시장 전망

- (세계시장) 연평균 1,89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전망 (2013~2015년)
 - 세계 철도시장의 성장률은 2005~2007 년 연평균 2.3%에서 2013~2015 년 3.4%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전체 시장 중에서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1,320 억달러로 입찰개방률은 약 70% 수준
- (국내시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7.7조원 규모
 - 고속철도 15.1 조원, 일반철도 17.6 조원, 광역철도 10.3 조원, 시설개량 1.2 조원, 유지보수 3.5 조원

○ 지능형 철도 시스템(IRIS) 현황

- (추진 배경) 현재 운용중인 열차제어·통신 방식은 1980년대에 개발된 VHF 방식으로 첨단 고속철도 운영에 적용하기에는 성능상 한계
- (구축 계획) 2021년까지 1.9조원을 투자하여 LTE-R 방식의 시스템 개발
 - (1 단계) LTE 방식을 적용한 도시철도용 열차제어·통신장비 개발
 - (2 단계) 방통위로부터 주파수를 배정받아 일반/고속철도용 시스템 개발
 - (국제표준 선점) UIC 에서 국제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기대효과) 운영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선로 수송용량 증대, 안전성 강화

□ 경제 이슈: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 중·러 중심 동북아 인프라 시장 확대 기대

-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 증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인프라시장 규모는 2010년 2,824억 달러에서 2020년 6,153억 달러로 연평균 8.1%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인프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0%(1,752억 달러)에서 2020년 74.4%(4,578억 달러)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러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발전소와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부문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2020년 사이에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10년 1,308억 달러의 약 2.5배 수준인 3,2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비중은 동기간 56.9%에서 71.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교통·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인프라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와 물류 운송 등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에너지 수출을 위한 송유관 투자를 확대 등 관련 인프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 444억 달러에서 2020년 1,351억 달러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인프라의 99%에 달하는 교통 부문과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10년~2020년 사이에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프라 산업의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시장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국내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는 2012년 현재 648.8억 달러로 2000년 54.3억 달러에 비해 12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對中 건설수주 규모는 2012년 3.2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의 2.4%에 불과하고, 對 러시아 건설수주 규모도 2012년 약 1.5억 달러로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공종별로 보면 특정 부문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는 등 개선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로 對中 건설수주 건수 중 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44.0%까지 상승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75.5%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對 러시아 건설수주 중 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2012년 30.8%, 금액 기준으로는 50.3%에 이른다. 더욱이, 對 러시아 건설수주의 건당 규모는 2007년 1억 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1,14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2015년까지 중국, 러시아 인프라 시장의 5%만 국내 인프라 수출이 가능하다면, 이들 두 국가 대상 인프라 수출은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 648.8억 달러의 약 23%인 약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은 향후 성장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기존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첫째,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수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건설업 역량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對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부문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인프라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 이슈: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베이비부머 은퇴 줄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산업화시대 주역의 은퇴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1963 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경쟁력을 갖춰 석유파동이나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0~80%대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맞물리면서, 2008 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2008~2012 년에 2.5%p 하락(76.8%→74.3%)하여, 15~64 세 고용률이 0.5%p 상승(63.8%→64.2%)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과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더 크게 떨어져, 성별·학력별 격차가 2008 년 이후에 더 커졌다.

둘째, 베이비붐세대가 직장을 떠나는 주된 사유는 '일거리 부족'이며, '정년퇴직'의 비중은 낮으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 년간 퇴직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세대 57.0 만명 중 23.4 만명(41.0%)은 일거리가 없거나 임시적·계절적 일의 종료,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때문에 직장을 떠났다.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조기퇴직은 3.3 만명(5.9%)으로 낮은 수준이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작업여건 불만족은 3.9 만명(6.8%), 육아가사는 2.0 만명(3.5%)이었다. 베이비붐세대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며, 정년연장 등의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셋째,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급감하는 가운데 농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004~2012 년 제조업 종사자가 연평균 2.8 만명씩 감소(116.2 만→90.9 만명)하여 숙련노동자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에서는 연평균 2.1 만명씩, 음식숙박업에서는 연평균 1.7 만명씩 감소하였다. 이는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순탄치 않으며, 기존의 자영업 베이비붐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밀려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베이비붐세대의 귀농현상을 반영하듯 농업 종사자가 연평균 3 천명씩 증가하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도 1 천명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는 연

1.4 만개씩(8.0 만→20.9 만), 사업서비스업에서도 1.4 만개씩(11.5 만→24.3 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넷째, 여성과 저학력자를 중심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승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2008~2012 년에 여성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50% 미만) 비중이 6.0%p(20.1%→26.1%)나 상승하여 남성의 1.0%p(3.0%→4.0%)를 크게 상회하였다. 초졸 베이비붐세대는 3.7%p 상승한 반면 대졸은 1.2%p 상승에 그쳤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본격적인 퇴직으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였다. 당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2008~2012 년에 연평균 0.9 만명씩 증가하였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1.6 만명씩 늘어났다. 공식실업률이 2%로 완전고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상태는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이 급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희망은퇴시점(만 65.5 세)과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퇴직시점(만 54 세)을 연결시켜줄 '가교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

시사점과 정책 제언

(고용률 전망)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과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 년에 72.3 만명(연평균 14.5 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65.0%)할 전망이다.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남성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빈도가 높아,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고용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정책 제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며,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농업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 **둘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에 장기간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출되지 않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되, 신규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 **셋째,** 정년연장 법제화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지원,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정착을 통해 실제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직장에서의 인생 2 모작이 가능하도록 기업 및 사회 차원의 전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산업화시대 주역의 은퇴

○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1963 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으로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

- 베이비붐세대는 2012 년 기준 714.9 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0.1%에 달하며, 취업자도 532 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
-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은 베이비붐세대는 경쟁력이 높아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
 - 베이비붐세대 중 대졸이상과 고졸의 비율은 각각 22.0%, 44.9%로, 베이비붐 이전세대(1946~1954 년생)의 11.4, 28.9%를 크게 상회(2012 년 기준)
 - 1970 년대 중반 노동시장에 유입된 베이비붐세대는 1970~1980 년대 중화학공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석유파동,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0%대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

○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

- 베이비붐세대는 '희망은퇴시점'과 '실제퇴직시점'의 괴리가 매우 큰 반면 '가교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비자발적인 은퇴 러시 우려
 - 국민의 희망 은퇴시점은 평균 65.5 세(통계청, 2011 년 가계금융조사)이나, 주된 직장에서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4 세(방하남, 2009)에 불과하여 괴리가 심각
 - 하지만 퇴직시점과 희망은퇴시점을 연결시켜줄 '가교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고용률이 급락할 우려
-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산업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

< 베이비붐세대의 고용구조 >

(만명, % ; 2012 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a)	실업자(b)	비경활(c)		
15~64 세	3,565	2,290	78	3.3	64.2
베이비붐세대	715 (20.1)	531 (23.2)	11 (14.1)	2.0	74.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년)

주1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2012년 기준 만49~57세이며, 괄호는 15~64세 대비 비중임

주2 : 실업률=b/(a+b), 고용률=a/(a+b+c)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

○ (분석범위) 먼저 고용구조 전반에 대해 고찰한 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추가로 분석

- 고용구조 전반 : 고용구조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며,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률 추이와 퇴직 사유를 고찰
 - 고용률 : 고용구조 전반을 고찰하는 지표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 있으며, 여기서는 고용률을 분석 지표로 삼음. 현정부는 고용률을 국정운영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5월말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
 - 퇴직사유 : 베이비붐세대 고용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대규모 이동이며, 퇴직사유 분석을 통해 취업자로 견인할 방안 도출
- 취업자 : 취업 중인 베이비붐세대의 산업별 구성 변화와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를 통해 산업구조 및 일자리의 질 변화를 고찰
 - 취업자 분석은 주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별,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여기서는 정책적 함의가 큰 산업별 구조 변화 및 임금수준을 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추이를 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실망실업자와 취업준비자, '그냥 쉬었음' 인구이며, 베이비붐세대에서는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었음이 대부분을 차지

< 분석 범위 >

	생산가능인구			
	고용구조 전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5~64 세				
베이비붐세대	① 고용률 ② 퇴직사유	③ 산업별 구성 ④ 저임금근로자비중		⑤ 실망실업자· 쉬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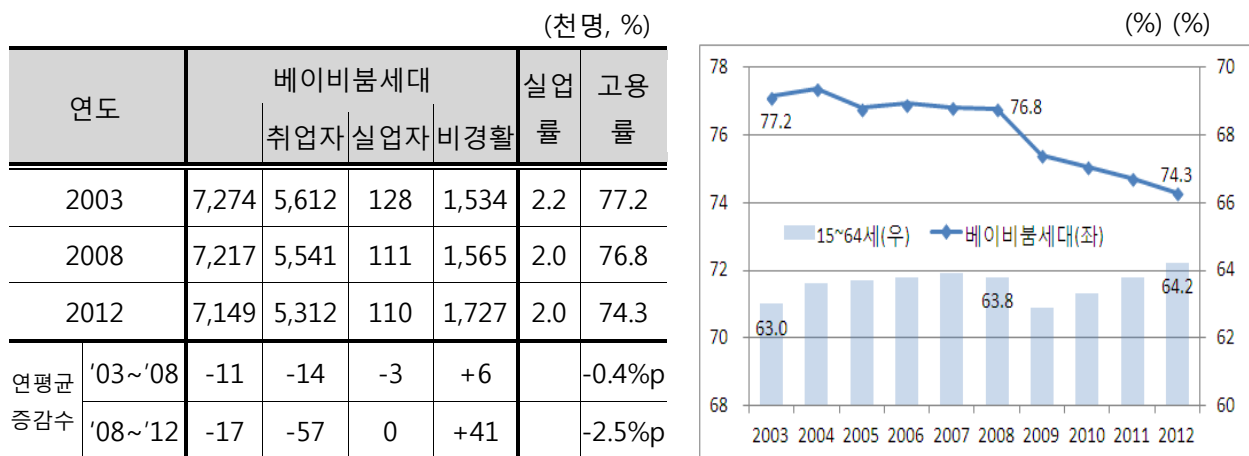
주 : '고용구조 전반'이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변화 및 변화 사유를 뜻함

① 본격적인 고용률 하락 국면 진입

○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맞물리면서, 2008년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2003~2008년 베이비붐세대 인구수는 연평균 1.1만명 줄어들고 취업자는 1.4만명 줄어들어, 고용률이 2003년에는 77.2%, 2008년에는 76.8%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5~64세 고용률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대조적
 - 2008~2012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수 감소폭(연 -5.7만명)이 인구 자연감소분(연 -1.7만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률이 2.5%p 하락(76.8%→74.3%)
 - 15~64세 고용률이 같은 기간 0.5%p 상승(63.8%→64.2%)한 것과 대조적
-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위기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실제 퇴직연령(만 54세)에 접어드는 베이비붐세대가 증가하기 때문
 - 2012년 현재 1955~1958년생이 만 54세를 넘어섰으며, 향후 5년간 모든 베이비붐세대가 만 54세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

<베이비붐세대의 고용구조 변화와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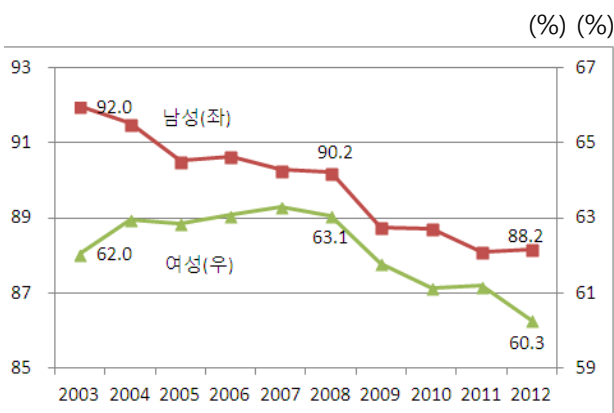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베이비붐세대는 2003년에는 만40~48세, 2008년에는 만45~53세, 2012년에는 만49~57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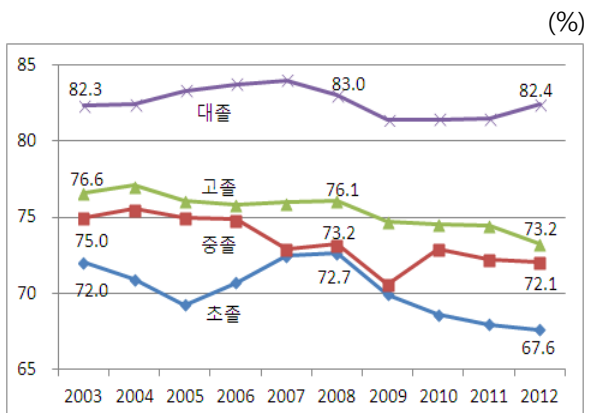
○ (성별) 여성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별 고용률 격차가 소폭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 베이비붐세대(2003 년 만 40~48 세)가 다시 취업에 나서면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축소
 - 2003~2008 년 여성 고용률이 1.1%p 상승(62.0%→63.1%)하여 남성 고용률이 1.8%p 하락(92.0%→90.2%)한 것과 대조적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다시 확대
 - 2008~2012 년 여성의 고용률 하락폭은 -2.8%p(63.1%→60.3%)로, 남성의 하락폭 - 2.0%p(90.2%→88.2%)를 상회
 - 2008 년 기준 여성과 남성 베이비붐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42.7%, 26.6%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가파르게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학력별 고용률 격차가 확대
 - 2008~2012 년 초졸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이 5.1%p 급락(72.7%→67.6%)한 반면 대졸자는 -0.6%p 에 그침
 - 2008 년 기준 초졸과 대졸 베이비붐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1.1%, 17.1%

<베이비붐세대의 성별 고용률>



<베이비붐세대의 학력별 고용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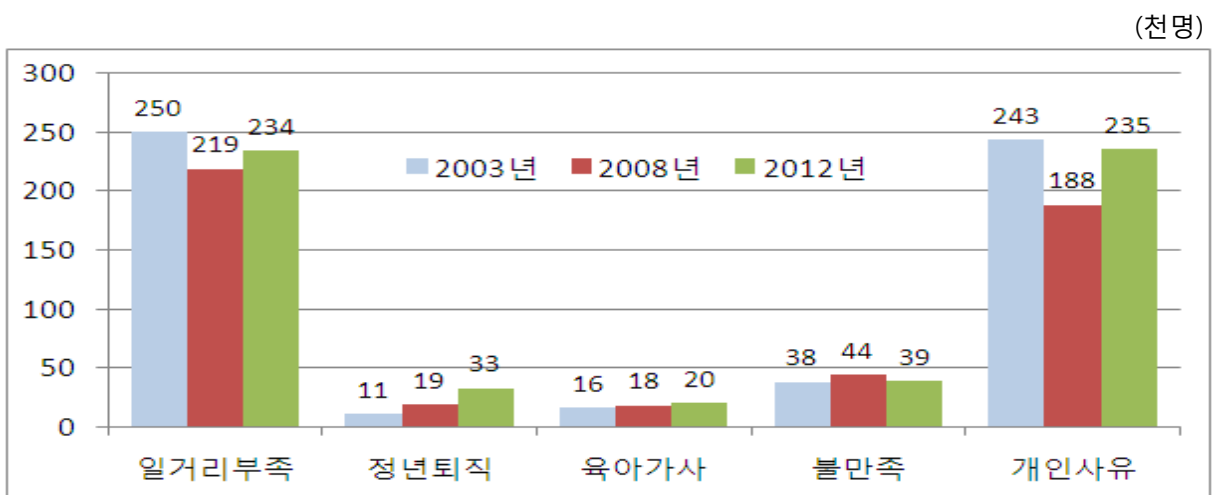
주 : 베이비붐세대는 2003년 기준 남성 367.2만명, 여성 360.2만명, 초졸 75.1만명, 중졸 139.4만명, 고졸 341.8만명, 대졸 171.3만명임

② 주된 퇴직 사유는 일거리 부족

○ 주된 퇴직 사유는 일거리 부족이며, 정년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

- 베이비붐세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일거리 부족 때문으로, 그만큼 장년층 일자리시장이 부족함을 반영
 - 지난 1년간 퇴직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 57.0만명 중 23.4만명(41.0%)이 일거리가 없거나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때문이라고 응답
 -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1.6%(373.9만명 중 118.0만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이는 50대를 위한 노동시장, 즉 주된 직장에서의 실제 퇴직시점과 희망 은퇴시점을 잇는 '가교일자리' 시장이 매우 불안정함을 반영
- 정년퇴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베이비붐세대는 아직 적은 수준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년퇴직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떠난 베이비붐세대가 2003년 1.1만명, 2008년 1.9만명, 2012년 3.3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점점 더 커질 전망
 - 다만 정년퇴직자의 대부분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고 전체 퇴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2년 기준 5.9%)도 아직은 작은 편임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사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일거리부족'은 일거리가 없어서, 다니던 직장의 휴폐업, 임시적·계절적 일의 종료 포함

'정년퇴직'은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를 포함

'불만족'이란 근무시간, 보수 등의 작업여건에 대한 불만족을 뜻함

주2 : 2012년 기준 비중은 일거리부족 41.0%, 정년퇴직 5.9%, 육아가사 3.5%, 불만족 6.8%, 개인적 사유 41.1%, 기타 1.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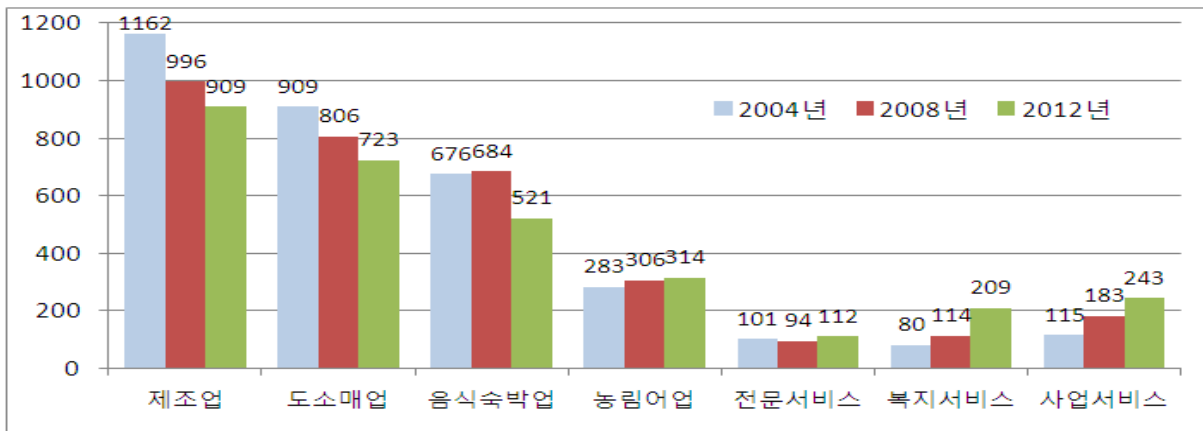
③ 지는 제조업, 뜨는 농업

○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급감하는 가운데, 농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제조업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감소세가 뚜렷하여 숙련노동자의 유출이 심각
 -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가 2004~2012 년에 연평균 2.8 만명씩 감소(116.2 만→90.9 만명)하여, 기타 세대가 연평균 2.0 만명씩 증가한 것과 대조적
- 자영업이 많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베이비붐세대의 퇴출 현상이 뚜렷
 - 도소매업에서 베이비붐세대가 2004~2012 년에 연평균 2.1 만명씩 감소(90.9 만→72.3 만명)하여, 기타 세대가 연 0.8 만명씩 증가한 것과 대조적
 - 음식숙박업에서도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1.7 만명씩 줄어들어(67.6 만→52.1 만명) 기타 세대가 적정 수준을 유지(연평균 0.0 만명)한 것과 대조적
 - 이는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순탄치 않으며, 기존의 자영업 베이비붐세대도 젊은 세대에게 밀려나고 있음을 반영
- 반면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존재
 - 베이비붐세대의 귀농현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2004~2012 년에 연평균 3 천명씩 증가(28.3 만→31.4 만)하여 기타 세대가 연평균 3.6 만명씩 감소한 것과 대조적
 -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고숙련자의 일부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전업하는데 성공하면서 연평균 1 천명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04~2012 년에 연평균 1.4 만명씩 증가(8.0 만→20.9 만)하였고, 사업서비스업에서도 연평균 1.4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11.5 만→24.3 만)
 - 기타 세대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7.6 만명씩,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3.4 만명씩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산업별 종사자 추이>

(천명)



자료 :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21개 산업) 기준

주1 : 2004~2012년 비중 변화는 제조업 20.7%→17.1%, 도소매업 16.2%→13.6%, 음식숙박업 12.1%→9.8%, 농림어업 5.1%→5.9%, 보건복지서비스업 1.4%→4.9%, 사업서비스업 2.1%→4.6%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4년)에서 대분류가 크게 바뀌어 2003년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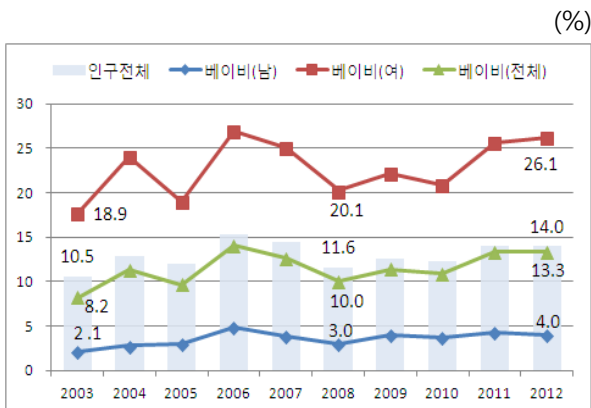
④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여성과 저학력자 중심으로 상승

○ 여성과 저학력자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50% 미만)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성 및 고학력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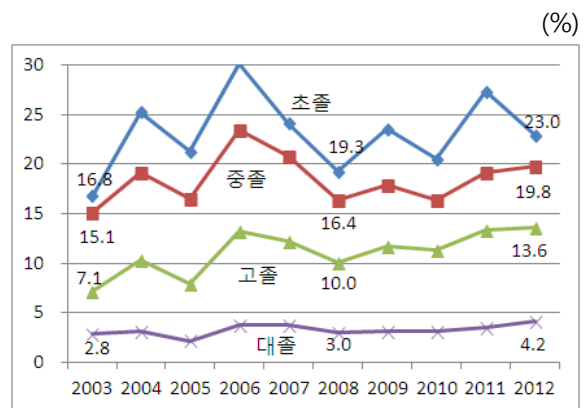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12년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6%p (20.1%→26.1%)나 상승해 남성의 1.0%p(3.0%→4.0%)를 크게 상회

· 같은 기간 대졸 베이비붐세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2%p(3.0%→4.2%) 증가에 그친 반면, 초졸은 3.7%p, 중졸은 3.4%p, 고졸은 3.6%p 확대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학력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저임금근로자'란 임금이 중위임금의 50%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뜻함

⑥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자 급증

○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겹치면서 구직난이 심화되고 실망실업자와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²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
 -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란 당장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도 있으나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베이비붐세대의 실망실업자는 2003년 6.0만명에서 2008년 5.8만명으로 안정적이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2년에 9.3만명으로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 2003~2008년에 연평균 1.2만명씩 증가(11.7만→17.9만명)하다가 2008~2012년에는 연평균 1.6만명씩 증가(17.9만→24.1만명)하여 증가폭이 점차 확대
-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는 이유는 가교 일자리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노동시장적 측면과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는 개인적 측면이 중첩되기 때문
 -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시점과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은퇴시점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일자리' 시장이 좁아,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망실업자 증가
 - 개인 차원에서 퇴직 후 가교일 자리를 통한 인생 2모작 계획이 부족할 경우,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베이비붐세대가 증가
 - 특히 고학력 정규직 베이비부머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빈번

² discouraged worker'의 포괄범위는 국가마다 다름. 현대경제연구원의 '실망실업자' 정의는 유럽 연합, 멕시코 등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임. 한편 한국 통계청은 '구직단념자'를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았았고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로 좁게 정의하고 있음(미국 등과 유사). 통계청의 '구직단념자'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실망실업자'로 명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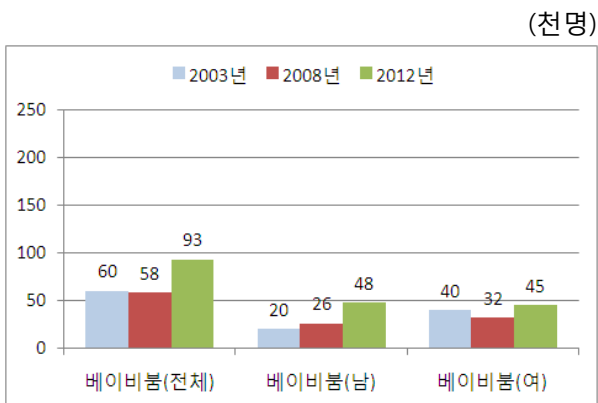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실망실업자나 그냥 쉬는 자가 증가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은 악화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OECD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매우 양호한 것처럼 보임
 - 베이비붐세대의 실업률은 2003년 2.2%, 2008년 2.0%, 2012년 2.0%로 완전고용 수준임
- 하지만 실망실업자나 '그냥 쉬고 있는 자'처럼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베이비붐세대가 급증하면서 체감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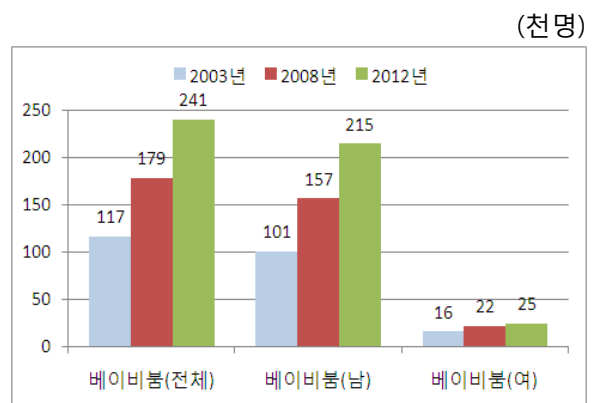
○ (성별) 증가하고 있는 실망실업자 및 그냥 쉬는 자의 대부분은 남성임

- 남성 베이비붐세대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취업준비·육아·가사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않고 그냥 쉬는 경우가 많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망실업자까지 증가
 - 2008~2012년 취업자가 12.0만명 줄어들었으며, 그중 8.0만명이 그냥 쉬거나 실망실업자가 됨
- 반면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에서 가사·육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자의 증가폭은 제한적임
 - 2008~2012년 취업자가 10.9만명 줄어들었으나, 실망실업자 및 쉬고 있는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1.6만명 증가에 불과

<베이비붐세대의 실망실업자 추이>



<베이비붐세대의 '쉬었음'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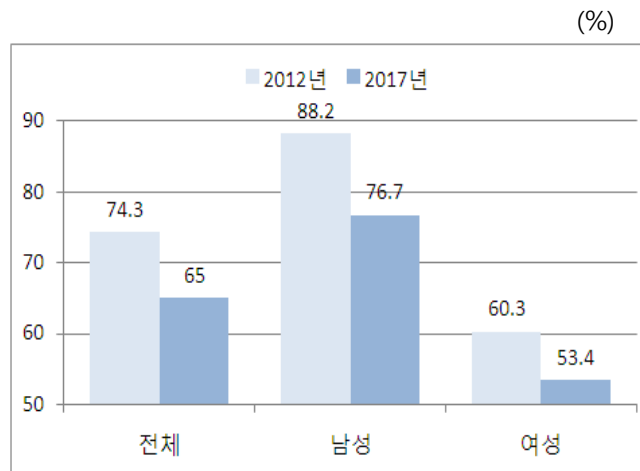
○ (고용률 전망) 2012~2017년 베이비붐세대의 취업자가 연평균 14.5만명씩 감소함에 따라, 고용률이 74.3%에서 65.0%로 9.3%p 급락할 전망

- 가정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이미 퇴직과 은퇴를 경험한 직전세대(1946~1954년생)의 취업자수 변화를 기초로 추계
 - 베이비붐세대 인구 전망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적용
 - 취업자수 전망 : 베이비붐세대의 직전 세대의 2003~2012년 평균 취업자 증감률(-2.9%)을 적용
- 고용률 : 2012~2017년 베이비붐세대 고용률이 9.3%p 나 급락(74.3%→65.0%)하여, 2003~2008년의 -0.4%p(77.2%→76.8), 2008~2012년의 -2.5%p(76.8%→74.3%)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베이비붐세대 취업자는 2012~2017년에 연평균 14.5만명씩 감소(5312만→4589만명)하여, 인구 자연감소분 -1.7만명(7149만→7064만명)을 크게 상회
 - 2013년 현재 베이비붐세대(만 50~58세)의 절반은 이미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인 만 54세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모든 베이비붐세대(만 54~62세)가 평균 퇴직연령을 넘어서기 때문
- 성별 :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남성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빈도가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고용률이 하락할 전망
 - 남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가 2012년 317.0만명에서 2017년 269.5만명으로 연평균 9.5만명씩 감소하여, 고용률이 9.8%p 급락(88.2%→78.4%)
 - 여성 베이비붐세대는 취업자가 연평균 4.9만명씩 감소(214.2만→189.7만)하여 고용률이 6.3%p 하락(60.3%→54.0%)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 전망>

(천명, %)

연도	베이비붐세대		고용률
	취업자		
2012	7,149	5,312	74.3
2017	7,064	4,589	65.0
연평균 증감수	-17	-145	-9.3%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자체 추산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

- 고용노동부는 3 월말 업무보고에서 2017 년까지 일자리 238 만개(연평균 47.6 만개)를 추가로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 특히 장년층(55~64 세)에서 144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17 년에 고용률을 67.8%로 끌어올릴 계획
- 베이비붐세대의 급격한 은퇴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소
- 본 보고서의 전망과 같이 베이비붐세대가 2012~2017 년에 연평균 14.5 만명씩 은퇴한다면, 매년 신규일자리 47.6 만개 창출이 쉽지 않음
- 정부의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책 제언

- 첫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농업을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 장년층 특성에 맞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학력 베이비붐세대가 전문성을 살리면서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
 - 2004~2012 년 베이비붐세대가 연평균 3.2 만명씩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는 연평균 0.1 만명씩 증가
 - 베이비붐 이전세대(1946~1954 년생)도 인구수가 연평균 7.8 만명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는 연 500 명씩 증가
 - 전문직에 종사하는 숙련도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베이비붐세대의 귀농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농업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화
 - 2004~2012 년에 베이비붐세대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연평균 3 천명씩 증가하였고, 베이비붐 이전세대도 2,500 명씩 증가
 -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부터 전업(轉業) 컨설팅을 강화

- 장년층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퇴직시점과 은퇴시점을 잇는 '가교 일자리'의 핵심 분야로 육성
 - 2004~2012 년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연평균 9.0 만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베이비붐세대는 1.4 만명,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0.6 만명이었음
 - 한편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연평균 4.8 만명 증가하였고, 그중 베이비붐세대는 1.4 만명,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0.9 만명을 차지
 -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내에서도 장년층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개발 지원

- 둘째,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베이비붐세대가 전공을 살리면서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숙련노동자의 이탈 속도 완화
 - 2012 년 현재 제조업 종사자 410.5 만명 중 90.9 만명(21.9%)이 베이비붐세대로, 오랫동안 숙련을 쌓았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핵심 계층
 - 90.9 만명 중 49.3 만명은 상용직근로자로서,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또한 고용주는 8.9 만명이고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도 12.8 만명에 달하므로, 전문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셋째, 장기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 베이비붐세대가 퇴출되지 않도록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되, 신규 진출은 자제

- 자영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상당수는 업력(業歷)이 길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퇴출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
 - 자영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49.1%(203.2 만명 중 99.8 만명)는 10 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5 년 이상 자영업자도 27.8%(56.6 만명)에 달하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매년 4 만명의 베이비붐세대가 퇴출
 - 업력이 길고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되, 과당경쟁이 심각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은 자제

○ 넷째, 베이비붐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법제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

- 2012 년 현재 취업 중인 베이비붐세대 531.2 만명 중 188.7 만명(35.5%)이 상용근로자로서, 2016 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퇴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
 - 정년연장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현실을 감안, 기업문화의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2012 년 직장을 그만둔 베이비붐세대 57.0 만명 중 정년퇴직자는 0.8 만명에 불과하고,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를 합쳐도 3.3 만명임(5.9%)
 -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법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다섯째, 새로운 직장에서의 인생 2 모작이 가능하도록 기업 및 사회 차원의 전직 지원 시스템 강화

- 기업 차원에서 퇴직예정자의 전직(轉職)을 돕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장년층의 전직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洗心錄

□ 잘 살아 보자

우리는 무작정 걷고 싶을 때가 있다. 자유롭게 쉬는 걸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걷게 된다. 여기에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날씨까지 무덥거나 춥다면 즐거운 걸음이 아닐 것이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위에서 쓸만한 장소를 찾아보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갇혀있기보다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절망적 상황이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창원은「인忍, 때를 기다림」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장장의 현실을 인내하고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안할수록 차분한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위기관리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나의 삶을 밝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또한 에릭 시노웨이의「하워드의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이란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지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에 빠지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오늘을 잘사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혹시 인생이라는 길에서 넘어졌다면 이를 나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나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에 다가온 슬픔의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취울 것이다.

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한 마디 말도 세 번 생각하라.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자원, 식량, 에너지가 바꾸는 세상**
- 저자: **고노 야스히로**
 - 1958년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졸업, 호주 본드대학 경영대학원 MBA
 - 일본경제신문사 편집국 산업부 겸 아시아부 편집위원
 - 저서 『강한공장』, 『이기는 공장』, 『아시아의 힘』

□ 주요 내용

○ “자원위기, 식량위기는 과장된 것이다!”

-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대국들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면서 자원과 물자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원위기와 식량위기감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식량소비는 인구에 적합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인도는 생각 외로 소식하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20년 가까이 지속된 저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며, 자원이든 농산물이든 지구상에는 아직 미개척분야가 많이 있음
- 세계적으로 식량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들을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생기고 있으니, 식량 증산 문제와 바이오 에너지의 잠재력 모두 낙관적

○ 에너지원의 변화: 석탄 르네상스 및 비전통 에너지의 부상

- (석유)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지만 선진국의 탈 석유화, ‘교토 의정서’에 따른 석유소비 억제 등으로 ‘피크 오일’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 (천연가스) 막대한 선행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므로 사용단가가 상승. 경제력 있는 선진국과 중진국이 쓰는 고급 에너지로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움
- (석탄)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력 전환효율 향상, 운전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로 석탄 소비 증가
- (비전통 에너지) 기술 혁신에 따른 셰일가스, 오일 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할 전망

○ 수요가 팽창하는 광물자원: 철광석, 희소금속, 희토류

- 신흥국의 인프라 건설, 내구소비재, 조선 및 기계를 비롯한 철강 다소비형 제품의 수출 확대로 철의 수요 증가
- 철광석 생산 상위 5개국(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러시아)은 세계 철광석의 80%를 생산하여 석유보다 과점도가 높음
- 자원기업의 독과점, 개발·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급등함
- 희소금속과 희토류는 전자계 첨단 제품의 중요한 원료이지만 생산지가 제한적이어서 세계적 공급이 불안정

○ 맬서스의 법칙은 틀렸다: 가장 희소성이 높은 자원은 '식량'이 아니라 '민물'

- 곡물생산은 인구보다 높은 증가를 보임: 3개 곡물(밀, 쌀, 옥수수)의 생산량은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95배 증가한데 비해 인구는 동기간에 2.07배 증가
-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부유해질수록 육류 섭취 증가. 최근 아시아 중심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였고 포화점에 달한 곡물 섭취량은 감소 시작
-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민물은 2.5%에 불과(바닷물 97.5%)하며 그 양이 절대 늘어나지 않음

○ 자원을 찾아: 프론티어와 경제의 흥망성쇠

- 아프리카는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2005년 이후 5~10%의 경제 성장을 달성
- 중국은 제2의 다칭유전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큰 유전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됨

○ 미래 에너지: '자연 에너지'와 '원자력의 효율적 활용'에 불과

- 100년 후의 미래에도 인류가 쓰는 에너지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축소', '탈원전'으로 진로를 크게 바꾼 것 같지만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세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
- 미래에 인류 앞에 꿈같은 에너지가 등장해 자원 확보 문제와 환경문제를 단숨에 해결주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